의생활

20세기 한국의 혼례 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 I

-서울과 경상도 지역의 혼례 풍속와 예복의 비교-

홍 나 영(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박 선 희(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에서는 현재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혼례 문화를 과거 전통적인 원형의 혼례 문화를 탐색하고, 그 변화과정을 살핌으로써 보다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대 한국사회는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하였던 조선시대의 풍습과 문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당시 부귀 빈천과 지방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개화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대화와 산업화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한국사회의 혼례 풍속도 많은 변화를 겪어 각 지방의 풍속이 섞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 지방과 경상도 지역에서의 혼례 풍속과 예복에 관련된 한국의 혼례 문화가 각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알아봄으로써 지방 고유 풍속을 파악함과 동시에, 시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흡수·통합하면서 발전하여 가는 과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적어도 해방 전부터 양가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가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서, 면접으로 자료를 구하였다. 면접 스케줄은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혼례 풍속은 서울과 경상도 지역에서 모두 개화기 이후 서양 의식의 영향을 받게됨에 따라 전통양식에서 전통과 서양식의 절충식으로 변해가면서, 점차 전통 의식이 생략되고 이벤트성 행사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둘째, 서울 지역의 경우 60, 70년대를 전후하여 약혼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경상도 지역에서는 약혼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함 받는 의식에서 지역 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70년대 이후 점차 의례가 사라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받는 시기에서도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서울 지역은 하루나 일주일 전인 것에 비해 경상도 지역에서는 보름에서 한달 전에 받는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넷째, 결혼 예복의 경우 두 지역에서 모두 전통적인 원삼, 활옷에서 한복에 베일을 쓰는 과도기를 거쳐 드레스 형태로 변화되었다. 다섯째, 폐백의 경우 두 지역에서 모두 음식을 친정에서 장만하던 것에서 전문 업체에 주문하는 것으로, 장소는 시댁에서 예식장으로 변하는 등 간략화 되었다.

따라서 산업화 이전 지역마다 다른 혼례 문화의 특성이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해 타 지방색이 유입되면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변질되거나 소멸되고, 오늘날 도시생활에 맞도록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